

“중소기업의 도전을
성공으로 연결하겠습니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양봉환 원장 인터뷰



금번 [기관장인터뷰(제42호)]에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양봉환 원장님과
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2013년 취임하신 이래, 경영혁신플랫폼을 구축하여 정
보화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화 시스템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소기업청 R&D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
면서 중소기업 R&D지원 사업을 통합 이관 받았으며, 국내 대표의 중소기업
R&D 전문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소통’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R&D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
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일시: 2015. 12. 18
- ▲ 장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대전 유성구 소재)
- ▲ 진행: 이원희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 참여: 봉우리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 정리: 박미선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학 력

한양대학교 행정학 학사(1985)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수료(1987)

■ 경 력

現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2013)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 국장(2012)
제14대 광주 전남지방 중소기업청 청장(2011)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 국장(2010)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금융지원과·정책총괄과 과장(2002)
제30회 행정고시 합격(1986)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은 2002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정보화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2015년 기준으로 연간 7,779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R&D 지원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그 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학연합회와 함께 3개 기관이 나누어서 담당하다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우리 기정원이 지난 2014년 12월에 중소기업 R&D 통합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3월부터 중소기업 R&D 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에는 기관의 확대된 기능 및 역할 변화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도전을 성공으로 연결하는 R&D 파트너'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중소기업이 R&D를 통해 단계별 성장 사다리를 거쳐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2013년 12월에 취임하셔서 2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간 어떤 비전과 경영철학으로 기관을 운영해오셨고, 앞으로 해나갈 생각이신지요. 또한, 취임하시고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신 사항이 있는지요.

저는 평소에 '소통'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중소기업 R&D 사업이 기정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조직이 통합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통합된 조직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기정원이 신뢰받는 국내 대표의 중소기업 R&D 전문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 간, 개인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정원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이 **중소기업 성장의 밑거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조직에 대한 공지와 자신감을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적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단기적·장기적, 미시적·거시적 차원의 다양한 관점에서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균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

기정원이 신뢰받는 국내 대표의 중소기업 R&D 전문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소통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R&D 전문기관 임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아침에 **인문학과 함께하는 통섭연단(統攝演壇)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들을 모시고 특강을 듣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총 11회를 개최하면서 기정원 소통경영의 근간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사상생의 소통경영을 실천하고, 구성원 간 공감과 소통의 활성화 및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정원 노사는 구성원 모두가 일하고 싶은 훌륭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사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자긍심 고취 및 노사 간 비전 일체화를 위해 정형화된 형식을 탈피한 **‘화통(和通)’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직급 간,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조직 내 소통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결과, 기정원은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중 하나가 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기정원이 중소기업 R&D 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기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더욱 크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R&D 지원 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후속조치에 따라 기정원은 올해 2월에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업무이관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예산 3,608억 원과 사업인력 10명 등 4개 사업을 이관 받았습니다. 1,685억 원 규모의 산학연협력 R&D 사업에 대해서도 일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이관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기정원이 수행하고 있던 R&D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3월에 다른 기관으로 업무 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R&D 지원 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중소기업 고객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R&D 과제관리시스템(SMTech)도 통합 이관하여 기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평가 대상인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대면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온라인상에서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이 시스템으로 인해 R&D 지원 사업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의 편의성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기술개발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 상에서 기술개발 과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등의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인 중소기업의 수요(needs)에 맞추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이나 시스템에 반영하여 정부 R&D 수행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정원은 R&D 지원 사업비의 배분 및 관리,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R&D 사업의 생애주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관리와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그 만큼의 전문성과 역량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떠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정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R&D 사업 자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사업 평가를 위한 전반의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위원의 선정과 섭외를 기정원이 담당**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 및 평가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차원의 개선 노력을 추진 중**입니다.

첫 번째로는 **평가위원회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법 중심의 전문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R&D 과제를 평가하는 위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성 지표는 기정원이 R&D 사업을 수행할 중소기업을 선정할 때 가장 많은 가중치를 두는 지표이지만, 기업이 제출한 제안서만을 보고 사업성을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안서 상의 기술 개발 가능성과 상용화, 그리고 시장성을 고려하여 사업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모두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에서 예측하고 평가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R&D 과제의 사업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우수한 평가위원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평가위원 등급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평가위원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R&D 평가 역량 강화를 통해 기술개발 성공과 사업화 성공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R&D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합니다.

평가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고도화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R&D 사업관리 및 평가업무에 대한 국제규격(ISO9001)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R&D 평가관리 서비스 품질을 표준화 하였고, 지속적인 평가관리 매뉴얼 개발, 평가관리 온라인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014년 보통에서 2015년 양호로 점수가 상승하는 등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R&D 사업이 기정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평가관리 업무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정원 **내부의 평가관리 전담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 지원의 정당성을 경제발전 초기에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을 펼치면서 중소기업이 상대적 차별을 받았다는 것으로 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원장님께서서는 중소기업청에서부터 다양한 경험을 쌓으신 전문가로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또한, R&D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타당성 문제는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고 해도 R&D 부문은 지원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지원 분야는 다를 지언정 R&D 투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합니다. R&D 지원을 통해서 기술이 개발되면, 그 기술은 특정 국가를 넘어서 인류 문명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기업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그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R&D 지원 사업이 요구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업 간 경쟁에 있어서 국경의 장벽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무역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기술이라는 무기를 제공하여 세계 시장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에는 개인 차원의 노력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가 우리 사회에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자본·정보 면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자체적인 힘으로 R&D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백억 원인 어떤 중소기업의 수익률이 10% 라고 가정하면, 10억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만 R&D 투자를 하기에는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익률은 보통 5% 미만인데다 대기업 협력업체의 수익률은 5% 이하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현재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 공동체의 삶과 미래를 위해서 경기 침체를 회복하고 또 다른 새로운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기 위한 해결책은 바로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좀 더 과감한 투자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당위성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지원 받은 중소기업의 이력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R&D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R&D의 주요 추진 목적이 R&D를 통한 사업화 단계 진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R&D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단계적으로 사업화 성공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R&D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2013년 기준 47.9%로, 민간 자체 R&D의 사업화 성공률인 34.8%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했을 때 지속적인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R&D 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창업 → 혁신기업 →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 중소기업 R&D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실적을 점검하여 그간 양적확대에 치중했던 KOSBIR 제도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부처 사업간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중소기업 R&D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핵심적인 일은 바로 R&D 사업화를 통해 매출확대라든가 시장개척 등의 성과를 내는 것이라 보이는데, 이를 위해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요.

중소기업 R&D의 사업화 강화를 위해 사업 선정 및 평가단계에서부터 사업화 가능성에 높은 비중을 두어 과제를 평가·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R&D 이후 사업화 성과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가감점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감점 제도란 사업화 성공률이 높은 기업에게 가점을 주는 것인데, 기술개발 성과가 높은 기업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하여 R&D 기획지원 예산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기술개발 3단계(기획 → R&D →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 중 첫 번째인 ‘R&D 기획’은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기술개발 위험을 감소시켜서 결과적으로 기술개발 성과를 제고하는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시장분석 및 예측을 통한 R&D 과제 선별 등의 역량이 취약하여 자체적으로 R&D 기획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R&D 기획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가능성 평가, 중기 사업전략 수립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분석한 후 R&D 기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 이후, R&D 사업화 성과제고 및 성과확산을 위해 자발적인 사업화 추진을 유도하고 연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화 성과공유계약제, 성과지향형 후불형 R&D지원, 시장상황을 고려한 무빙타겟제 등 R&D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R&D 성공기업의 사업화지원을 위해 민간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 성공 이후에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 노력에 대한 결실로, 4.8억 원의 R&D 지원 사업을 받은 ‘코나아이(주)’라는 중소기업은 스마트카드의 일종인 IC 카드를 개발하여 처음 R&D 지원



을 받던 2001년에 비해 고용은 102명에서 2014년 20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매출액도 313억 원에서 2014년 2,050억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1억불 수출 달성, Global IT 수출 무역인상, 월드클래스 300 유공자 포상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IT환경을 마련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보나 투자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중소기업의 정보화 경영활동을 돕는 경영혁신플랫폼을 구축해서 많은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정원이 2002년에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으로 출발하여 정보화 수준에서 소외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IT 서버나 ERP 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가 설치한 시스템이 기대한 만큼 유용하게 쓰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정보화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시스템을 관리할 인력과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함에도 비용 측면에서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정보화 시스템을 관리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경영혁신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별 기업 단위로 시스템을 설치해주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경영혁신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플랫폼의 유지보수 및 보안은 기정원이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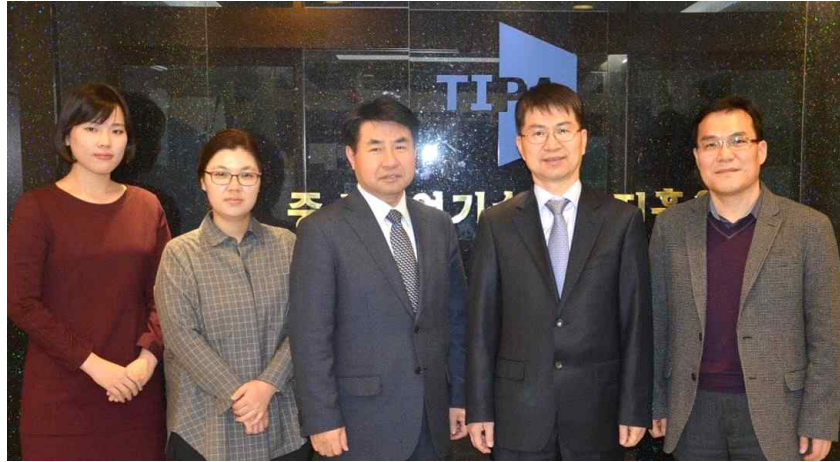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 만인 2015년 10월 말에 11,122개 중소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업종별 특화 업무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금융·세금·매출·영업 등에 대한 IT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20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약 2,700억 원을 투입했으나 불과 3,800여 개의 기업만이 정보화 시스템을 이용하던 과거 방식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영혁신 플랫폼은 통합시스템이어서 업종별 통합 자료를 산출하기가 매우 용이**한데, 안전을 위해 매월 사용량을 보고해야 하는 가스업체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로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정보시스템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현재의 경영혁신플랫폼 서비스를 오픈마켓으로 확대하여 S/W기업과 영세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공공기관 기관장의 한 분으로서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된 제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해야 하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정부와 민간의 중간 단계 조직으로서 공공부문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경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함께 요구되며, 양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의 성격상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책임성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혜택을 제공하는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다 넓게 보장해주는 것이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Korea Technology and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for Small & Medium Enterprises)**

주무기관	중소기업청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관장 (임기)	양봉환 (‘13.12.11~‘16.12.10)
소재지 (대표전화/홈페이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동) TBC 센터 6층 (042-388-0100 / www.tipa.or.kr)			
설립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			설립연도	2002년 01월
설립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함으로써 경영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				
주요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01월 특수법인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개원 ▪ 2002년 06월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 지정(법 제7조) ▪ 2006년 03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개명 및 R&D 지원 ▪ 2009년 01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정 ▪ 2014년 12월 중소기업 R&D 사업 평가관리 전문기관 일원화 				
주요 기능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보급·확산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 ▪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